

Title: Jonah part 1 Sermon Notes

Scripture: Jonah 1:1-3

Date preached: October 10th 2021

Scripture: Jonah 1:1-3

1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saying, **2**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ry out against it; for their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3** But Jonah arose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He went down to Joppa, and found a ship going to Tarshish; so he paid the fare, and went down into it, to go with them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1 여호와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저 큰 니느웨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 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3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옹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삿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Introduction

Last week we finished our study of the book of the minor prophet Obadiah. It is sadly one of the most ignored and neglected parts of the bible. We move on today to look at a far more popular and well-known section of scripture. The story of Jonah and his adventures, particularly with the big fish is arguably one of the best known portions of scripture. According to the website “Ranker.com” on which people are able to rank various things Jonah is positioned as the 21st most popular book in the whole bible. I am sure that if you grew up in church, and particularly if you attended Sunday school as a child that you know something about Jonah. It is a perennial favourite as a text to teach children.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its popularity.

It's a short book at just four chapters. It's almost all narrative so it's easy to read and understand. It's an interesting and well told story. And best of all it contains the story of a large fish swallowing a man. Today we will embark on a five-week journey which will take us through the story of the prophet Jonah. Even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book I hope that I'll reveal something you did not previously know. Most of all I hope that you will be blessed through this study. We begin today by stepping back and looking at the book as a whole. As I said when we looked at Obadiah it is very useful before reading any book of the bible to ask the kinds of questions good journalists or investigators ask. Who wrote it, when was it written, where was it written, why was it written and what kind of writing is it? Having the answers to these basic questions means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original authors intent and then determine why it is still relevant today and what it has to teach us.

지난 주에 우리는 소先知자 오바다의 책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에서 가장 무시되고 무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훨씬 더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경전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나와 그의 모험, 특히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웹사이트 "Ranker.com"에 따르면 요나는 성경 전체에서 21 번째로 인기 있는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 자랐다면, 특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다면 요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로 늘 사랑받는 교재입니다. 그 인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다. 거의 모든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흥미롭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삼키는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5 주간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더라도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책 전체를 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오바다를 볼 때 성경의 어떤 책을 읽기 전에 훌륭한 언론인이나 조사자가 묻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떤 종류의 글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다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 wrote the book?

It seems like a good place to start by asking who wrote this book.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the prophet Jonah is the writer. After all if the events the book records are true, and I believe they are, they must have come from Jonah himself. However the book itself does not identify its author. Some have argued against Jonah being the author because it is written in the third person rather than in the first person. It is after all more common to write or speak about your own personal experiences in the first person. You would think it strange if you asked me about my weekend and I said, "John went on a bike ride" instead of, "I went on a bike ride."

However it is quite possible that Jonah guided by the Holy Spirit just chose to write in this way. We see a similar style adopted by the prophet Daniel in the book that most conservative scholars believe he wrote. Others have argued that it is unlikely that Jonah wrote it himself because it is so critical of the prophet. I find this to be a weak argument. Part of the point of the book after all is to highlight the danger of foolish thinking. Sadly then we cannot then say with any certainty who wrote the book. This fact should not in any way lead us to doubt or question what is records.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nspired the author whoever that was, but for whatever reason did not deem it important for us to know their name. My personal feeling is that we have no real reason to believe that the book was not written by the prophet Jonah.

누가 이 책을 썼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선지자 요나가 저자라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요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책 자체에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1 인칭이 아니라 3 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요나라는 주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1 인칭으로 쓰거나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제 주말에 대해 물었을 때 "John은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가 아니라 "John은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보수 학자들이 그가 썼다고 믿고 있는 책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채택한 유사한 문체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를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요나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것이 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의 요점 중 일부는 어리석은 생각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록이 무엇인지 의심하거나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책이 선지자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실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What do we know about the prophet Jonah?

Fortunately we do know something about the prophet to whom God gave this prophecy. In verse 1 we read.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This piece of information is incredibly useful because it connects us to another passage of scripture which tells us more about Jonah. In 2nd Kings we read;

He restored the territory of Israel from the entrance of Hamath to the Sea of the Araba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God of Israel, which He had spoken through His servant Jonah the son of Amittai, the prophet who *was* from Gath Hepher. (2 Kings 14:25)

From these verses we can ascertain the following facts about Jonah; his father was called Amittai, he was a prophet, and he was from the town of Gath Hepher which was near Nazareth in the Galilee region. This makes Jonah one of the few prophets who came from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The 2nd Kings reference also helps us place Jonah in history. Jonah it seems ministered God's word to King Jeroboam II of Israel. He reigned ove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from 793-753 BC. We can also strongly infer from scripture that Jonah was a prophe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death of Elisha to the prophesying of Amos approximately forty years elapsed, during which time the only recorded prophetic voice is Jonah's. In our bibles today Jonah appears as the fifth of twelve minor prophets.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선지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정보는 요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는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중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셨더라 (왕하 14:25)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밋대라 하는 선지자요 그는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가드헤벨이라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온 몇 안 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열왕기하 2장 참조는 또한 우리가 요나를 역사에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는 BC 793-75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으로부터 아모스의 예언까지 대략 40년이 경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록된 유일한 예언적 음성은 요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서 요나는 열두 소선지서 중 다섯 번째로 등장합니다.

When was it written?

Again there is considerable uncertainty regarding the dating of Jonah. Some scholars claim that Jonah's visit to Nineveh took place during the reign of Adad Nirai who reigned from 808-783 BC. The book may well have been written in the latter part of the 8th century BC.

다시 요나의 연대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나가 니네베를 방문한 것이 기원전 808-783년에 통치한 아다드 니라이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Where and to whom was it written?

Again no place of origin or audience is mentioned in the book. However if we assume that Jonah lived and ministered during the reign of Jeroboam II it seems likely that he was living i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t is also highly probable that he was writing to the people of Israel.

다시 한 번 책에는 출신지나 청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살았고 사역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북 이스라엘 왕국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hy was it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why God gave this message first to Jonah and through him to the Jews we need to put what was happening at the time in historical context. Jonah lived and received his message from God at a very successful time in Israel's history. Even though King Jeroboam II was an evil ruler in God's sight the nation of Israel had prospered. In terms of territory gained Israel's borders were at their greatest extent since the time of King Solomon. However as is often the case increased wealth and success had not led to the people being morally upright. Instead, their increased prosperity resulted in a materialistic culture that thrived on injustice to the poor and oppressed. Naturally this was hardly something that pleased God. Also displeasing to God was the way in which the people of Israel viewe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s.

Over time, they had become very exclusive when it came to their religion. They felt that their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needed protecting. They believed that it was something for them alone to enjoy, and as a result it must be kept from Gentiles. They therefore did not want the Gentile nation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As if this selfish way of thinking was not bad enough they were also guilty of projecting their hostile attitude towards the Gentiles onto God. Since they hated the surrounding nations they assumed that God did too. We see this way of thinking epitomized by Jonah in his attitude to the people of Nineveh. Therefore God gave his people this book to teach them that His attitude towards Gentile nations was different to theirs. They thrived upon hate, but He is a God of love and mercy. If they really wanted to serve Him faithfully they needed to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and see the Gentile nations as God sees them.

The book then serves as a revelation to God's people reminding them of His sovereign power and loving concern for all His creation. Jonah is also very interesting as he is the only Old Testament prophet on record whom God sent to a heathen nation with a message of repentance. Why had God chosen to send a missionary prophet to Assyria? At the time of Jonah the Assyrian empire had been in a politically weakened state for some time. However as a nation they were well-known for their incredible cruelty. They ruled their empire by terror and were the inventors of a number of hideous ways of killing people. One of the most barbaric was the impaling of people who were still alive on wooden stakes. They executed thousands at a time in this way. They therefore most definitely needed to repent of their wicked and evil ways and turn to God.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먼저 요나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성공적인 시기에 살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영했습니다. 획득한 영토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최대의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부와 성공의 증가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번영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기반으로 번성하는

물질주의적 문화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종교에 있어 매우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이므로 이방인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고방식도 나쁘지 않은 듯 이방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죄도 있었다. 그들은 주변 민족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에서 이러한 사고 방식을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증오로 번성했지만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한다면 생각을 바꾸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책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권능과 사랑에 찬 관심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 역할을 합니다. 요나는 또한 기록상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이방 나라에 보낸 유일한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앗수르에 선교사 선지자를 보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요나 시대에 앗수르 제국은 한동안 정치적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로서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제국을 통치했으며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끔찍한 방법의 발명가였습니다. 가장 야만적인 것 중 하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을 나무 기둥에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수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사악하고 악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What kind of writing is it?

The book of Jona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Minor Prophets. Whereas they focus primarily on the sayings of the prophet, the book of Jonah focuses on the events or actions of the prophet's life. As I previously said Jonah is primarily a narrative account it does however include 8 lines of poetry in chapter two. If we had to categorize the genre of Jonah we might describe it as an historic narrative with a strong didactic or teaching purpose.

Much of the debate regarding the kind of writing it is rest on whether we believe that what we are reading is fact or fiction. Many biblical scholars who follow a system known as higher criticism simply see Jonah as being a legend or fable. Sadly this view has filtered down into many in today's church.

Such a view teaches that we should read Jonah as a fantastic mythical story and certainly not take it to be historical reality. After all, reason tells us that no one could be swallowed by a big fish and live inside it for three days. Others think we should read it as an allegory. With the various people or things in the story representing others things. I reject both these views. I believe in an all powerful supernatural God. He can manipulate the natural world in ways that we can only describe as miracles. Therefore I have no problem believing that a giant fish swallowed Jonah and then spat him out alive again later. Let me provide three additional reasons for accepting Jonah as historical fact.

1	The writers style, wording and grammar are identical to the other historical books. We have no reason to think that Jonah should be understood in a different way.
2	The book deals with, and mentions real people and places. In 2 nd Kings Jonah for example is treated like a real prophet.

3	The Lord Jesus Christ spoke about Jonah as if he was a real person (see Matthew 12:39-41). If the Lord Jesus accepted Jonah to be real then so should we.
---	---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이 주로 선지자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요나서는 선지자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요나는 주로 내러티브 계정이지만 2 장에는 8 행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장르를 분류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력한 교훈 또는 교육 목적을 가진 역사적인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의 종류에 관한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고등 비평으로 알려진 체계를 따르는 많은 성서 학자들은 단순히 요나를 전설이나 우화로 봅니다. 슬프게도 이 견해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우리가 요나를 환상적인 신화적 이야기로 읽어야 하고 그것을 역사적 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이성인 아무도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그 안에서 3 일 동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화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 다양한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 다른 사물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거부합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연 세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나중에 그를 산 채로 내뱉었다고 믿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세 가지 추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1 작가의 문체, 표현, 문법은 다른 역사서들과 동일하다. 우리는 요나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이 책은 실제 사람과 장소를 다루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 장에서 요나는 실제 선지자처럼 취급됩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가 실존 인물인 양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2:39-41 참조). 주 예수께서 요나를 실재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With the background to the book complete let us look at the first three verses.

1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saying,

The book opens without any preamble in simple dramatic fashion. The “Word of the Lord” is an expression which occurs over 100 times in the Old Testament. It alerts us to the fact that God has something special to reveal to someone He has chosen. It is time to sit up and pay attention. How this word came to Jonah is not given, but we know that God speaks to people in His own special and unique way. So God had a special message for a man named Jonah. The name Jonah means “dove.” A dove in scripture is sometimes a symbol for peace or purity. However it also carries a less positive meaning and is sometimes associated with silliness (Hosea 7:11). Jonah as we will see was at times rather silly. It also on other occasions associated with moaning or lament (Isaiah 38:14). This is also something we see Jonah doing in chapter 4. His fathers name is also interesting, Amittai means “the truth of God.” Let us see what God wants Jonah to do.

이 책은 서문 없이 단순하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주의 말씀”은 구약에 100 번 이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내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앉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요나에게 임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경전에서 비둘기는 때때로 평화나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습니다(호세아 7:11). 우리가 보게 될 요나는 때때로 다소 어리석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음이나 탄식과 관련된 다른 경우에 사용됩니다(이사야 38:14). 이것은 또한 4장에서 요나가 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Amittai 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봅시다.

2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ry out against it; for their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God has a special mission for Jonah. The mission has two components. Firstly he is to go to the Assyrian city of Nineveh and once there his second mission is to “cry out” or literally to “preach” against it. Nineveh was at this time a great and ancient city. It had been originally built by Nimrod who also built Babel. It stood on the banks of the Tigris river opposite the modern day Iraqi city of Mosul. God was sending Jonah to warn the people of Nineveh that He was fully aware of their wickedness. The word wickedness used here is the Hebrew *ra' (rah)*, It has a wide range of meanings from; evil, bad, unkind, disagreeable, lawlessness, wrongdoing to disaster or calamity. As we said before the Assyrians were a wicked and cruel pagan people. God of course had always been aware of this, nothing we ever do or think is hidden from God. The point here though is that God's judgement time is now upon Nineveh. Let us see how Jonah reacts to God's message.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무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앗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가고 그곳에서 그의 두 번째 사명은 그곳에 대해 “외치며” 또는 문자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크고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원래 바벨을 건설한 니므롯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이라크 도시 모술 맞은편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사악함을 잘 알고 계시다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ra' (rah)*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나쁜, 불친절한, 불쾌한, 불법,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악행.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앗수르인들은 사악하고 잔인한 이교도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지금 니느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3 But Jonah arose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He went down to Joppa, and found a ship going to Tarshish; so he paid the fare, and went down into it, to go with them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So after receiving God's message Jonah packs his suitcase and sets off for Nineveh. No, this is not what Jonah does.

I hope you can see the map on screen because it clearly shows Jonah's intention. He went to Joppa and found a ship heading to Tarshish (modern day Spain). In other words he wanted to flee in completely the opposite direction, and as far away as was possible from what God wanted. Why was Jonah so against going to Nineveh? There may have been several reasons.



1 It was a difficult assignment. Imagine having to go somewhere and telling the people they were wicked and God was angry with them.

2 It was a dangerous place to go. The Assyrians were not very friendly people. They often killed people they didn't like in nasty ways.

3 He hated the people of Nineveh. They were Israel's enemy. He didn't want Gentiles to hear God's Word, turn from their wickedness and be saved. Next week we will see what happens to Jonah as he tries to run away from God's will.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 여행 가방을 꾸리고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요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화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갔다 옴바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다 (현대 스페인). 다시 말해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방향, 최대한 멀리 신이 원했던 것에서. 요나는 왜 그래서 니느웨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1 어려운 과제였다.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 가기 위험한 곳이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리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쾌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3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things for us to think about from today's passage.

1 Our call to speak out against wickedness

There is the temptation for Christians especially in hostile settings to isolate. The world is against our message and often hates us. Why not therefore create a Christian ghetto and only mix and interact with other Christians? In such a ghetto we can be safe and secure and not come into contact with evil wicked people. I think that it was this that partly lay behind Jonah's desire not to go to Nineveh. However such an approach is dishonoring and displeasing to God. We are not here on earth just to safely wait until it's time to die and join Christ in heaven. We are here with an

important mission. We are here to be salt and light to a wicked world. This means being bold and speaking out against wickedness. For William Wilberforce it meant speaking out against slavery, for Dietrich Bonhoeffer about the evils of Nazism and for us today well pick your evil. Abortion, pornography,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here are never shortages of evil wicked things going on. Therefore there are always things for us to speak up against and for us to call people to repentance from. Therefore may we be bold in speaking out against wickedness.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적대적인 환경에서 고립시키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에 반대하며 종종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빈민가를 만들고 다른 기독교인과만 섞이고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빈민가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하며 사악한 사악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니스웨에 가지 않으려는 요나의 열망 뒤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 불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소금과 빛을 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담대하고 악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그것은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했고,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게는 나치즘의 해악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신의 악을 잘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낙태, 음란물, 아동 착취. 계속되는 사악한 사악한 일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할 것이 항상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The foolishness of trying to run or hide from God

I don't really know what Jonah was thinking when he tried to run away from God. Clearly its impossible to run or hide from an all powerful, ever present and all knowing supernatural being. Perhaps he thought that God might just forget what He had commanded Him to do. That is just foolish thinking. But don't we too at times think in the same way. Don't we fool ourselves by thinking we can hide from God or keep our sins from Him. When we think like this then we too are fools. Our place before God is as His humble and obedient servants. When He call us to a task we are to willingly and joyfully undertake it. When we stumble and fall as we frequently do we are to come humbly before Him and confess. We have His promise that He will be merciful and forgive us. Let us never forget that no thought or action is ever hidden from the eyes of God.

나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강력하고 항상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우리의 죄를 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과업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걸려 넘어질 때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다.

